

Style 1 조선일보

SEPTEMBER 2019
vol.194





Cartier

DIAMOND COLLECTION





RALPH LAUREN





32

16

Style 조선일보

SEPTEMBER 13, 2019

TOODS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연스럽고 교양 있는, 양질의 삶을 추구하는 우아한 여성. 이는 이탈리아의 세련된 감성을 담담하게 풀어낸 토드의 2019 F/W 컬렉션과 완벽상호한다. 이번 시즌의 메인 소재인 가죽은 트랜치코트, 블레이저, 스카트, 셔츠, 바지 등에 적절히 쓰였고, 도시적인 디자인과 실용성을 강조한 다른 옷들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 빈티지를 더한 세련된 액세서리도 주목할 것. 문의 02-3438-6008



24



12

- 12 **SELECTION** for him 추상화와 그래피티 아트가 만든 패션 갤러리.
- 14 **SELECTION** for her 생동감 넘치는 플로럴 프린트의 향연.
- 16 **PATRICIA URQUIOLA** 패션이든 인테리어든 산업디자이너인 '디자이너'를 둘러싼 생태계에서 밀라노라는 도시의 상징성은 대단하다. 저층심이 하늘을 찌르는 청조 도시 밀라노에서 '여행' 대접을 받는 이형인 크리에이티브가 있다. 스페인 오비에도에서 태어났지만 20대 초반인 1980년대 중반부터 줄곧 '디자이너'의 메카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공부하고 일하면서 생동감 넘치는 삶과 카리어를 꾸려온 파트리시아 우르키올라 (Patricia Urquiola). 런던에서 우연히 그녀의 디자인을 마주하고 한눈에 반한 지 10여 년 만에 마침내 대담한 대화를 나눌 기회를 낚아챘다. 해마다 '제2의 고향'이나 다름없는 그녀의 도시를 가장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는 밀라노 디자인 주간에 빼곡한 스케줄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이룬 소중한 만남. 예상치 않은 빈전 카라터라 어쩌면 더 즐거웠던 인터뷰였다.
- 18 **TRULY MAGNIFICENT** 예술 작품을 빙글게 하는 디자인과 화소성 있는 스톤의 조화로 탄생한 하이 주얼리 피스. 강렬하고 매혹적인 세계로의 초대.
- 20 **TIMES SQUARE** 흠을 접어 올린 셔츠나 재단이 잘린 트랜치코트, 반듯한 재킷 소매 아래로 살짝 보이면 더욱 근사하다. 사각사각 기류가 끼워지는 소리에 어울리는 사각 시계.
- 22 **2019 F/W TREND REPORT** 과감하게 달아내거나 섬세히 더하는 스타일링의 모미가 가득한 2019 F/W 시즌이 도래했다. 더욱 살벌하게 돌아온 파워 스타일부터 과감한 로맨틱 무드로 한층 충만해진 프린트 스룩까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여성복 트렌드의 민천을 즐겨보자.
- 24 **FULL HOUSE** 클래식, 그리고 스타일리스한. 새로운 시즌을 여는 빅 하우스들의 남성복 뉴욕 프리뷰.
- 32 **NOMADIC LUXURY** 오늘날 디자인 환경은 컴퓨터 덕에 더할 나위 없이 편리해졌는지 모르지만, 스크린에 끌려다니 나머지 여러 메이킹 환경을 싹고 제대로 미학을 터득한 스타일을 찾기 힘들다는 비판이 있다. 최고의 기술, 정인 정신에 입각한 섬세함과 예술성을 갖추고 재료가 구상에 제약을 별로 받지 않는 플랫폼에 디자이너들은 환호할 수밖에 없다. 브랜드의 핵심 가치인 '여행 예술'이라는 맥락에서 세계적인 디자인어들과 자유로이, 하지만 수준 높은 창조적 협업을 펼쳐온 루이비통 (Louis Vuitton)의 '오브제 노마드 (Objets Nomades)' 프로젝트가 좋은 예다. 게다가 이 프로젝트가 빛아낸 아름다운 기구와 소품 컬렉션을 한국에서도 선보일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려온다.
- 34 **EDITOR'S PICK** 쏟아지는 신제품 홍수 속 에디터들을 사로잡은 가을 뷰티 아이템 13.

Style 조선일보

Issue.194 September 2019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정와은 rarara@chosun.com 에디터 | 이혜미 hmlee0909@chosun.com
 이주이 juyi@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숙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광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경희 ih5567@chosun.com 분해 | 재판 | 라온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패리는 비즈나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일로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리서치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허시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it starts with a dream





Jewel BOLD GOLD

묵직한 존재감으로 시선을 끄는 골드 주얼리 5.

(왼쪽부터) 그래픽적으로 연속되는 링크·화이트 골드 원형 모티브 마다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극도로 화려한 부형 도르 브레이슬릿 6천7백만원 **반클리프 아펠**, 링크·화이트·옐로 골드, 총 세 가지 앙상을 결합한 형태로, 인체적인 곡선과 직선의 조화가 아름다운 석세스 링 가격 미정 **프렌드**, 블랙한 컬러 모티브에 총 53개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산발적으로 세팅한 베이지 골드 코코 크라쉬 미디엄 링 가격 미정 **사넬 화인 주얼리**, 채운과 돌 모티브로 강인하고 다양한 매력을 강조한 타파니 하드웨어 링크 브레이슬릿 1천9백25만원 **타파니**, 출중한 스타드 장식의 링크 골드 클러쉬드 카르페에 라지 브레이슬릿 1천만원대 **카르페에**, 에디터 **이혜미**

Fashion METAL IN BLACK

도회적인 매력을 배가해줄 골드 메탈 포인트.



(우부터 시계 방향) 가방을 열어 클러치 백으로 연출하거나 달착 가능한 스트랩을 이용해 크로스 바디 백으로 착용 가능한 플렉스 스타일백 4백69만원 **펜디**, 매끈한 스카우트로 완성한 버터 텍스처 1백99만원 **호저 비비에**, 심플한 블랙 드레스와 완벽한 조화를 이룬 구조적인 브레이슬릿 1천9백만원대 **에르메스**, 브랜드의 상징인 레드 백 장갑과 함께 착용한 가죽 브레이슬릿 90만원대 **에르메스**, 고유의 간치니 로고가 돋보이는 벨트 79만원 **살바토레 파라기오**, 에디터 **이유이**



Beauty ORIENTAL EXPRESS

진귀한 재료를 사용해 동양 미학을 완성한 건강한 제품 6.

(왼쪽부터) 더 사가 오브 수 지화비책 **에센스** 피부 활력을 되돌리는 태반 재조합 지하 성분과 인삼의 모든 것을 더한 전성분을 사용했다. 한번 바른면 보습과 영양이 채워지고, 세 번 덧바르면 24시간 동안 끈적임 없이 보습이 지속된다(100ml 18만원). **동인비 1899 아쿠아 부스팅 오일** 특허 받은 홍삼 오일을 함유했다. 세안 후 기초 첫 단계에 사용하는 가벼운 수분 타입 오일로, 미세 각질을 관리해 피부결을 정돈해준다(50ml 9만원). **더 하스트리드 오브 후 비침 순환 미스트** 자극 없는 인계 분사로 뿌리는 순간 즉각적으로 수분을 공급하고 메이크업 후 사용 시 광채 피부 연출에 효과적이다. 아침, 점심, 저녁 기초 단계뿐만 아니라 메이크업 위에도 사용 가능하다(100ml 7만5천원). **선평수 진살 아이 크림** 탄탄하고 또렷한 눈가 피부를 위한 프리미엄 한방 안티 에이징 아이 크림. 고농축 적용 성분의 강인한 생명력에 복령 성분을 더해 눈가 피부의 힘을 길러준다(25ml 27만원). **미사 초공진 멀티 블러셔** 화사하고 우아한 골드 팔이 생기는 얼굴빛을 완성해주는 하이라이터 겸용 블러셔. 진귀한 한방 성분인 공진비책 단을 함유해 피부 보양 효과까지 있다(10.5g 2만8천원). **연차 진초 폼 클렌저** 미세 거품으로 개운하게 세정해주는 건강한 폼 클렌저로, 풍부한 항산화 물질을 함유한 알차있을 갈아 그대로 담았다. 모공과 잔주름 사이에 각 각종 오염 물질과 노폐물, 피부를 제거한다(120ml 3만8천원). 에디터 **장리윤**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별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Space
매장의 품격, 브랜드 고유의 DNA를 담은 새 공간들..
이솜 · 프리츠 한센 · 핸드앤몰트 등

브랜드의 매장이 단순히 상품을 단순히 진열해놓고 판매하는 공간으로만 기능하지 않는다는 건 새삼스러운 뉴스가 아니다. 오늘날 브랜드의 매장은 까다로운 소비자층의 오감을 만족시켜야 하기에 편안하거나 '핫한', 혹은 의미 있는 자립적 위치에 자리 잡고 매력적인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그것이트렌드를 이끌면서도 고유의 정체성과 맞아떨어져야 한다. 그래서 주적으로 새 단장을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도 하고 말이다. 최근 새롭게 선보인 자연주의 스킨케어 브랜드 이솜(Aesop)의 서울 가로수길 시그니처 매장은 진정성이나 인식 같은 요소에 중점을 뒀음, '과시적이지 않은' 브랜드 철학과 잘 어울리는 예다. 디자인 스튜디오 MLK와의 협업으로 재탄생한 이 공간은 가로수길의 번잡함 속에서도 고요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이었다. 은은한 이목마 향이 감싸는 넉넉한 2개 층과 루프톱으로 이뤄진 이 매장은 전열대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고, 곳곳에 '숨'을 들릴 수 있는 요소가 뿌려져 있다. 문화 예술 행사를 할 수 있는 2층 공간이던 1층 계단 통로의 비스듬한 창, 가로수길 주변이 은행나무 등으로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루프톱 등이 그렇다. 덴마크 가구 브랜드로 명성 높은 프리츠 한센(Fritz Hansen)은 삼정동에 국내 최대 규모의 3층짜리 스토어를 마련했는데, 이 역시 고유의 유서 깊은 정체성을 드러내면서도 자립적 특징을 살려 한국의 미를 함께 품은 공간으로 기획됐다. 하우스 오브 프리츠 한센에는 글로벌 최초로 PK(플 케틀룸) 라운지가 들어섰고, 국내 작가들의 작품과 미술품, 북유럽 디자인을 살펴볼 수 있는 해외 서적 등도 구비했다. 프리미엄 크래프트 맥주 브랜드 핸드앤몰트(The Hand & Mill)의 새 매장 '브루 랩(Brew Lab)' 용산도 눈길을 끈다. 경복궁점, 광화문점에 이어 서울 용산구에 들어선 세 번째 점점 매장으로, 오래된 양옥을 개조한 외관부터 눈길을 끈다. 혼맥을 위한 1인실, 상상의 나라를 펼칠 수 있는 맥주 실험실, 푸드 페어링, 아이 티라스 등 다양한 요소가 매력을 자아낸다. 에디터 **고성연**



Exhibition
<폴란드 디자인 ABC>展 +
우국원 개인전 <Third Time Lucky>展

일상의 미학이 동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친근하고 유희 있게, 그러면서도 진정성 있게 다가오는 두 전시를 소개한다. 요즘 지루함에서 또 다른 문화 예술 감상의 원천으로 부각하고 있는 폴란드를 상징하는 디자인 세계를 접할 수 있는 전시 <폴란드 디자인 ABC(The ABC's of Polish Design)>가 그중 하나로 베를린, 부다페스트, 비엔나 등 여러 도시를 거쳐 서울에 상륙했다. 한국-폴란드 수교 30주년을 맞아 대백화점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폴란드 아담 미츠키 에비치 문화원에서 기획한 이 전시는 롯데백화점 잠실점 에비뉴 엘아트홀(9월 6~29일)과 롯데갤러리 인천터미널점(10월 3~27일)에서 잇따라 열린다. 1918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1세기 에 걸친 폴란드 디자인을 대표하는 오브제 1백 점과 유리, 도자기, 장난감, 서적, 로고 등을 25명의 작가 작품을 통해 다각도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다. 2017 남아심 국제 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 공모전 수상자이자 마우고자트라 구로프스카(Małgorzata Gurowska)와 사실적인 그래픽의 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한국에도 널리 알려진 이보나 흐미엘레프스카(Iwona Chmielewska)의 작품 등도 포함돼 있다. 서울 한남동에 자리한 갤러리K(www.galleryk.co.kr)에서는 자신만의 강성적 화법으로 대중적 인기가 높은 작가 우국원의 개인전 <Third Time Lucky>를 펼친다. 그림처럼 표현한 텍스트와 사람, 오브제, 의인화한 동물들이 강렬한 색채를 입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우국원의 회화 세계는 언뜻 친근하면서도 일상의 서정적 감성에 우화적이고 철학적인 사유가 스며들어 있다는 평을 듣는데, 이번 전시에는 작가의 스케치와 관련재를 가꾸고 있다. 에디터 **고성연**



Mart Dillon, New York, 2019 Brioni.com

Brioni
ROMA

TAILORING LEGENDS SINCE 1945

The Shilla Seoul B1, Galleria Luxury Hall East 4F, Shinsegae Main 6F, Shinsegae Centum City 5F, Hyundai Main 4F, Avenuel World Tower 4F

for him
Selection
추상화와 조각, 그래피티 아트가 만든 패션 갤러리.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hwang in woo

부드러운 수납공간을 자랑하는 토트백 2백99만원 발렌티노 가리버나- 언더커버.

리우드 프레인의 선글라스 53만7천원 벨루티.

단검을 모티브로 한 클래식 체인 네크리스 가격미정 존 하디.

로고 플레이가 돋보이는 볼캡 59만15천원 지방시.

역동적인 그래픽 장식의 스웨트셔츠 2백47만원 에르메네질도 제나 XXX.

차수와 멀티 스트리트 장식이 화려한 스니커드 로퍼 1백94만원 지미후.

깔끔한 실루엣으로 어느 의상이나 잘 어울리는 에이스 구찌 블랙아이드 스니커즈 1백15만원 구찌.

유쾌한 프랑켄슈타인 프린트의 나일론 배낭 88만원 프라다.

별도의 수납공간으로 랩톱과 보조 배터리 등 전자 기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MY4810 캐빈 버전 파인원 케이스 90만원 몽블랑.

아이스크림의 장엄성을 표현한 실크 타이 22만원 폴스미스.

파우치의 시선을 담은 아폴러 1백만1천원 에르메스.

토끼 모양 프린트가 유쾌한 스타크림 랩백 백백 1백65만원 MCM.

부드러운 니트 소재 롱 코트 3백50만원 오프화이트.

카탈루냐의 로코아르케아스 기아, 로코아르케아스 by B.M.OZ.

모든 아이템으로 활용하기 좋은 보자기 7천원 마틴보츠 by 무이.

아이스크림의 장엄성을 표현한 실크 타이 22만원 폴스미스.

유쾌한 프랑켄슈타인 프린트의 나일론 배낭 88만원 프라다.

별도의 수납공간으로 랩톱과 보조 배터리 등 전자 기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MY4810 캐빈 버전 파인원 케이스 90만원 몽블랑.

스카프와 이색형 에디터 야미

지방시 02-546-2790
지미후 02-3443-9469
BN402 02-6905-3684
무이 02-3446-8074
프라다 02-3218-5331
벨루티 02-547-1895
구찌 1577-1921
몽블랑 1670-4810
MCM 02-540-1404
오프화이트 02-3449-5967
에르메스 02-542-6622
폴스미스 02-6905-3456
발렌티노 가리버나- 언더커버 02-2015-4653
에르메네질도 제나 XXX 02-518-0285
존 하디 02-2150-2309





전면을 장미
모티브로 장식한
셔츠 1백34만원
프라다.

부드러운 시폰 소재로
완성된 아이 마스크
7만엔에 리처드슨 by
메치스패션샵.

만개한 꽃을 형상화한 그레이스
블럼 리치엔 링 27만5천원
아틀리에
스외르브스키.

코르사주기
동보이는
모자 64만원
헬렌카인스키.

경쾌한 핑크와
블루, 블루 핑크가
엔조 앙젤로 레디스업
슈즈 99만원 멜포조.

스외르브스키
아틀리에
유형정
이시나미
이시나미

for her Selection

가을 초입에 만난 생동감 넘치는 플로럴 프린트의 향연.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hwang in woo



대단한 아름다움. 플로럴 시폰을 시폰으로 스카프 스타일의 디자인을 선보인
이시나미.

포인트
아이템으로
추천하는 드롭
이어링 57만원
이시나미 by
사은 캄사 by
분더샵.



다양한 수납공간으로
실용성을 높인 백백 1백88만원 마우미우.

포인트
아이템으로
추천하는 드롭
이어링 57만원
이시나미 by
사은 캄사 by
분더샵.



브랜드의 상징인
카멜리아 모티브를 더한
가죽 미장 사슬.



스트리트 장식이 매혹적인 백
3백51만원
발렌티노 가리바니-인더커버.

드라마틱한
러플 장식
미드레스
가격 미정
루이비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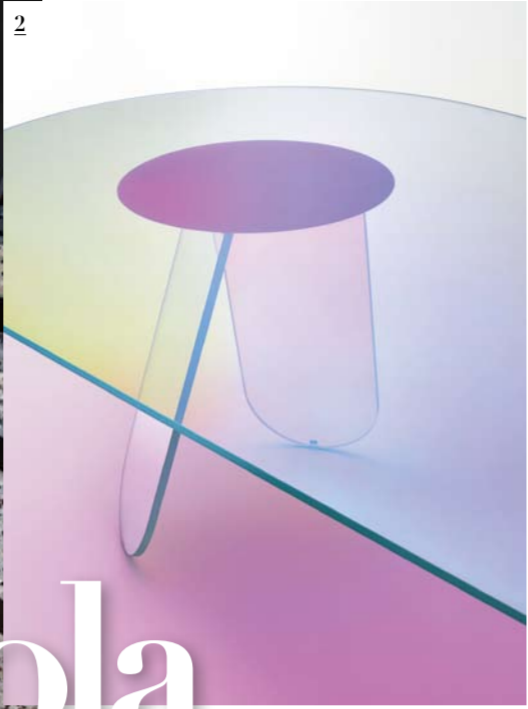
주요 포인트가 화려한 핑크
2백44만원 로저 비비에.

- 헬렌카인스키 02-3433-6593 블루마린 02-6905-3447
- 아틀리에 스외르브스키 02-6930-9984
- BN402 02-6905-3684 분더샵 02-2056-1234
- 마우미우 02-3218-5331 샤넬 02-543-8700
- 루이비통 02-3432-1854 지방치 02-546-2790
- 메치스패션샵 080-822-0307 멜포조 02-3449-5926
- 프라다 02-3218-5331 로저 비비에 02-6905-3370
- 발렌티노 가리바니-인더커버 02-2015-4653



HOTEL SHILLA ARCADE GANGNAM, CENTUM CITY
SHINSEGAE MAIN BUISAN, DAEJU
LOTTE AVENUE COEXMUL WORLD TOWER
GALLERIA LUXURY HALL EAST AK PLAZA BUNDANG STORE
T.02-2230-1225 WWW.COLOMBOVIADELLASPIGA.COM

COLOMBO
1955
VIA DELLA SPIGA
MADE IN ITALY



Patricia Urquiola

패션이든 인테리어든 산업디자인이든 '디자인'을 둘러싼 생태계에서 밀라노라는 도시의 상징성은 대단하다.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는 창조 도시 밀라노에서 '여왕' 대접을 받는 이방인 크리에이터가 있다. 스페인 오비에도에서 태어났지만 20대 초반인 1980년대 중반부터 줄곧 '디자인의 메카'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공부하고 일하면서 생동감 넘치는 삶과 커리어를 꾸려온 파트리시아 우르키올라(Patricia Urquiola). 런던에서 우연히 그녀의 디자인을 마주하고 한눈에 반한 지 10여 년 만에 마침내 대화다운 대화를 나눌 기회를 낚아챘다. 해마다 제2의 고향이나 다름없는 그녀의 도시를 가장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는 밀라노 디자인 주간에 빼곡한 스케줄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이른 소중환 만남. 예상치 않은 '반전' 캐릭터라 어쩌면 더 즐거웠던 인터뷰였다.

디자인은 늘 일상 속에 있지만 삶의 어느 지점에서 그 단어가 눈에 쏙 들어오거나 의미를 곱씹어보게 되는 계기를 갖게 되기도 한다. 필자의 경우에는 산업디자인을 둘러싼 생태계를 취재하다가 관심을 품었고, 그 호기심의 싹이 동력으로 작용해 런던에서 유학하던 시절 꽤 많은 디자이너와 크리에이터를 만나게 됐다. 산업, 인테리어, 가구, 패션, 건축 등 딱히 영역을 가리지 않고 말이다. 그러던 어느 날, 취재차 이탈리아 가구 브랜드의 새로운 쇼룸을 찾은 적이 있는데, 그 공간을 디자인한 크리에이터에 단번에 끌렸다. 우아한 옷차림으로 커다란 눈을 반짝반짝 빛내던 40대의 파트리시아 우르키올라(Patricia Urquiola)였다. 당시 행사장은 파티 분위기로 떠들썩했던지라 다음번에 밀라노를 찾으면 인터뷰를 해보자는 얘기를 그녀의 매니저와 주고받았지만, 실제로 성사되지는 않았다. 그 뒤로도 몇 차례 스치거나 먼 발치에서 본 적도 있지만, 진중한 인터뷰 기회는 좀처럼 찾아오지 않았다. 올봄의 밀라노는 그런 의미에서 축복이었다. 파트리시아 우르키올라를 '계대로' 만날 수 있었으니까. 자신의 스튜디오 운영과 별도로 이탈리아 가구 브랜드 카시나(Cassina)의 아트 디렉터를 맡고 있기도 한 그녀가 새 컬렉션 꾸민 쇼룸으로 찾아왔다. 'Cassina Perspective'라는 글자가 쓰인 커다란 유리창 안으로 온통 짙은 푸른색을 띤 벽이 보이고, 그 벽의 아래쪽 절반과 바닥을 수놓은 격자무늬가 시선을 잡아끈다. 내부로 들어가면 한쪽 벽면에는 영상이 흐르는 스크린이 달려 있고, 그림과 가구, 조명 등이 어우러진 여러 유형의 세부 공간이 펼쳐지는데, 연극 무대나 아트 갤러리를 연상시키는 구성도 있다. 이리저리 둘러보고 있노라니 그녀가 도착했다.

밀라노의 그녀, 유쾌함과 놀라움을 안겨준 반전 면모

주말이라 그런지 편한 옷차림을 한 파트리시아. 씩씩한 걸음걸이에서 호방함이 느껴진다. 내 쪽에서는 수첩을 펼쳐놓을 수 있는 제법 높다란 테이블과 의자가 필요했고, 그녀는 답하면서 조명의 온기를 못 견뎌 했기에 이리저리 옮기다가 마침내 적당한 자리에 마주 앉았다. 10년 전 런던에서의 스침을 인연으로 밀라노에서 만날 기회가 매니저의 실수(?)로 날아간 걸 비롯해 이상하게 인터뷰 기회를 좀처럼 잡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슬쩍 뻘ساب을 드러내자 그녀는 호탕하게 웃었다. "이제 이렇게 만나지 않았느냐"면서, 그렇게 마주한 지 10여 분 만에 그동안 품고 있던 선입견이 많이 날아갔다. 사실 '느슨한' 상상과 꽤 거리를 둔 몇 차례의 스침으로 필자가 지나게 된 그녀에 대한 인상은 밝고 부드럽고 우아하지만 속은 단단한, '외유내강형'에 가까웠다. '스페인+여성+시랑스러운 디자인' 같은 요소가



The Women Who Inspire Us_ *interview Q9*



1 인터리어·디자인업계에서 '여왕' 수식어를 단 건축가이자 디자이너 파트리시아 우르키올라(Patricia Urquiola). 스페인 사방이잔 대학 시절부터 밀라노에서 활동해왔으며 글로벌 고객을 거느린 자신의 스튜디오와 더불어 이탈리아 하이엔드 가구 브랜드 카시나(Cassina) 아트 디렉터로 활약 중. 사진 배경은 카시나 쇼룸에 있는 가예타노 페체(Gaetano Pesce)의 작품 '펠트리(Feltri)' 테이블에 앉아 있는 파트리시아. 사진 제공 카시나 2 클리노 이탈리아의 시머(Shimmer) 테이블. 3 지난 4월 밀라노 국제가구박람회에서 'Cassina Perspective'라는 주제로 꾸민 카시나 쇼룸. 미리오 벨라니의 'CAB 페달리' 새 시리즈가 보인다. Photo by Stefano De Monte 4 파리 루이 비통 재단 미술관에서 전설의 프랑스 디자이너 샤를로트 페리앙(Charlotte Perriand) 회고전이 열린다. 페리앙과 르 코르뷔지에 등의 크리에이티브 아카이브를 지닌 카시나는 이 전사를 위해 협업을 펼치고 있다. 사진은 페리앙과 피에르 잔느레(Pierre Jeanneret)의 가구와 페르낭 레제의 미술 작품 'Les Deux Femmes aux Fleurs'가 있는 라셀스 룸. ©Adsgo, Paris, 2019. ©Archive Charlotte Perriand. 사진 제공 루이 비통 재단 미술관 5 샤를로트 페리앙의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카시나의 새 가구 컬렉션. Photo by DePasquale+Maffini 6 파트리시아 우르키올라 스튜디오가 밝은 만년린 오리엔탈 바르셀로나의 인터리어. 7 파트리시아 우르키올라가 독자 노선을 모색하던 때 산모를 보낸 모로소(Moroso)의 '밀로(Milo)' 테이블. 8 스페인 전통 우븐 기법과 현대적인 문양을 잘 조화시킨 아웃도어 가구 컬렉션 마야(Maya). 협업 브랜드는 카텔(Kartell). 9 가구 브랜드 카텔(Kartell)과 손잡고 선보인 '컴백(Comback)' 테이블. 10 일렉트릭의 협업체 만든 '버클(Buckle)' 시계. 11 루이 비통 레 브랜드의 '올버레이(Overlay Bowl)'. 가족 시트 단 4장만을 정교하게 조립해 만든 수공예 작품(바구니). 사진 제공 루이 비통 12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조명 브랜드 플로스(Flos)와 함께 내놓은 차센(Chasen) 램프. 13 모로소 '실버레이크(Silver Lake)' 테이블. 사진 제공 라트 브랜드



섞이면서 형성된 이미지인지도 모르겠다. 물론 그녀는 밝다. 태양의 나라 스페인 출신다운 면모가 푹푹 묻어난다. 그런데 예상보다 훨씬 더 거침없고, 솔직하며, 카리스마와 에너지가 넘친다. 폭포수처럼 말을 쏟아내지만 푹부리진 데다 심지가 있다. 말할 때의 속도와 기가에 놀려 자칫 정신을 빼앗길 수도 있지만, 쫓싸게 파고들어 질문을 던지면 순발력 있게 다 받아친다(안 그런 듯하지만 나름 다 듣고 있었던 것이다). '예스, 노'가 아주 분명한 편이지만 위압감을 주지 않고, 유머러스한 면 덕분에 대화를 하다 보면 긴장감이 풀어진다. 유쾌한 반전이 아닐 수 없었다.

타고난 열정, 그리고 거물급 멘토들에게 배운 '삶의 자세와 직업의 마학'

활달하고 주눅 들지 않는 성격과 열정 어린 자신감은 커리어 전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음이 틀림없다. '인복'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따라왔을까. 스승들을 아주 잘 됐다. 1961년 스페인 오비에도에서 태어난 파트리시아 우르키올라는 밀라노 폴리테크니코 대학에 다니면서 건축과 디자인을 공부했는데, 이탈리아의 전설적인 거장인 아킬레 카스틸리오니(Achille Castiglioni)를 은사(지도교수)로 모셨고, 그의 조수로 일하기도 했다. 그를 만나려고 밀라노에 왔노라고 묻자 그녀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저는 창조적인 성장을 하려면 익숙하고 편안한 안전 구역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일찍부터 알고 있는 유형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드리드에 갔다가 밀라노로 옮겼는데, 국경이 달라지니 정말 많은 게 바뀌더라고요. 큰 변화였죠. (새 토양에서) 뿌리를 새롭게 내려야 하니까요. 쉽지 않았지만 제게는 지양분이 된 거죠. 그렇게 밀라노는 나의 도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는 당시 밀라노에서 활약하던 또 다른 거장 비코 마지스트레티(Vico Magistretti)가 그녀의 인생에 등장했다. 아니, 파트리시아의 설명에 따르면 그와 일하고 싶어서 먼저 나섰다고 한다. 실력과 인품을 겸비한 비코와 함께 그녀는 유명 브랜드 데파도바(DePadova)의 신제품 개발을 맡아 커리어를 쌓아나갔다. "비코는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 1990년대에 밀라노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닌 유일한 분이었어요." 커리어 여정에서 만난 2명의 걸출한 여성 귀인이 있었다. 첫 번째는 초기의 고용주라고 할 수 있는 데파도바의 공동 창립자이자 경영자 마달레나 데파도바. 지금은 고인이 된 데파도바 여사를 회상하면서 파트리시아는 '환상적(fantastic)'이라는 표현을 아낌없이 쓰면서 비코, 마달레나와 함께 일하면서 일과 삶의 방식과 품격에 대해 정말 많은 걸 배웠다고 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이탈리아 가구 디자인계의 또 다른 여성 파워 파트리치아 모로소(Patrizia Moroso). 필자가 런던에서 파트리시아의 디자인을 제대로 마주쳤을 때 그녀가 쇼룸 디자인을 맡았던 브랜드가 바로 모로소이기도 했다. 1952년 설립된 모로소의 경영진 2세대인 파트리치아 모로소는 브랜드의 아트 디렉터로 꾸준하게 명성을 떨쳐온 인물.

'내 이름'을 건 스튜디오와 유사 깊은 이탈리아 브랜드들 동시에 이끈다는 것

"파트리치아 모로소는 제가 디자이너로서 독자 노선을 걷기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저의 잠재력을 믿어준 분이예요." 파트리시아는 1998년 모로소와 '스텝(Step)'이라는 소파 시스템을 처음 내놓았고, 2001년 자신의 이름을 내건 스튜디오를 연 이래 본격적으로 왕성한 협업을 전개해나갔다. 세련된 곡선이 몸을 부드럽게 감싸는 '피오르(Fjord, 2002)' 암체아라든지 매혹적으로 파이어는 한송이 꽃을 연상시키는 '안티보디(Antibodi, 2006)'라든지, 사다리꼴 프레임 위에 편안한 드레스 같은 쿠션이 얹힌 '볼란트(Volant, 2007)' 테이블, 누비침이 주는 정다운 질감과 거위 털을 넣은 쿠션이 시랑스러운 '젠티리(Gentry, 2011)' 소파 등 많은 히



트작이 있다. 또 파트리치아 모로소와의 우정을 바탕으로 우디네(Udine)에 있는 그녀의 자택 인테리어를 도맡기도 했다. 물론 일부 브랜드에 한정된 활동은 아니었다. 파트리시아 우르키올라는 B&B 이탈리아, 몰테니(Molteni), 카텔(Kartell) 같은 가구 브랜드는 물론 프랑스 크리스탈 브랜드 바카라(Baccarat), 덴마크 페브리크 브랜드 크바드라트(Kvadrat), 대리석 브랜드 부르디(Burdi) 등 폭넓은 스펙트럼의 협업을 펼쳤다. 또 호텔 디자인으로도 영역을 넓혔다. 만다린 오리엔탈 바르셀로나 호텔, 밀라노의 부티크 호텔 롬메이트 줄리아, 베를린의 다스 슈투에(Das Stue), 밀라노 인근 코모에 자리한 일 세레노(Il Sereno) 등이 그 예다. 그러다가 2015년 가을, 파트리시아의 인생 여정에 커다란 방점을 찍은 사건이 벌어진다. 2년 전 창립 90주년을 맞이한 이탈리아 하이엔드 가구 브랜드 카시나의 아트 디렉터를 겸하게 된 것. 본인 스튜디오만 꾸리기에다 바쁜 외경에 어찌 그런 결정을 하게 됐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종류의 일이 아니에요. 그들이 날 선택하는 거지." 그녀는 이렇게 나지막이 속삭이면서 카시나 같은 회사가 혁신을 해보자는 자신에게 제안의 손길을 내민 건 큰 영예(big honor)라고 힘주어 말했다.

마리토니의 끈기, 플리멩고 댄서의 열정, 그리고 카멜레온 같은 유연함

최근 수년 새 카시나는 파트리시아 우르키올라와 여러모로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꾸려나가고 있다. 부를레크(Bouroullec) 형제, 로돌포 도르도니(Rodolfo Dordoni) 등 글로벌 현역 디자이너들과의 협업을 이끄는 일부터 밀라노 플레그십 매장을 새로 단장하는 일, 풍부한 아카이브를 바탕으로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 샤를로트 페리앙(Charlotte Perriand) 같은 전설적인 크리에이터들의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그들의 아카이브 작업을 심도 있게 전개하는 일 등 바쁘게 짝이 없다. 그리고 오는 가을에 파리의 루이 비통 재단 미술관에서 열리는 샤를로트 페리앙 대규모 회고전을 위한 협업도 진행 중이다(마침, 우리가 앉아 있던 의자가 샤를로트 페리앙의 뉴 버전이기도 했다). 파트리시아의 강점으로 스스로 만든 경계에 함몰되지 않고 프로젝트에 따라 유연하게 변신하는 카멜레온 같은 면모가 꼽히기는 하지만 이토록 다채로운 일들을 소화해내는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올까? '난관이나 투쟁 따위는 내 사전에 없다' 뭐, 이런 자세인 걸까? 하지만 그녀는 "난관은 당연했었고, 지금도 겪고 있어요. 난 보통 사람이니까"라고 한다. 하지만 "끈질긴 테가 있기는 하다고 강조한다. "저는 재능은 그리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도움이 되는 하지만요. 여러 재능 중에 좋아하는 걸 끈기를 갖고 해나가는 게 중요하한데, 무엇보다 그 과정을 즐길 줄 알아야 해요. 그래야만 끈질기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녀는 축약하자면 '사랑과 열정(love and passion)'이라고 말하면서 웃었다. '왕관의 무게' 같은 건 별로 옛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파트리시아 우르키올라에 대한 책의 서문을 쓴 디자인 전문가를 그녀를 가리켜 자신이 만난 이들 중 가장 행복한 디자이너라고 하면서 일과 사랑, 삶에 대한 열정이 넘치기에 행복하고 긍정적인 느낌이 디자인에도 묻어나는 게 아닐까 분석했다. 그녀를 만나봐야만 그 매력적인 디자인 세계를 온전히 체험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절로 고개가 끄덕여가 되는 대목이었다. 글 **서연** 밀라노 현지 취재



TASAKI

높은 곳에서 낙하하는 폭포에서 영감을 받은 워터폴(Waterfall) 시리즈의 하이 주얼리. 길이별 각각 다르게 연출한 이크아 진주와 남양 진주 여러 줄은 광활한 바다로 떨어지는 거센 물줄기를 표현한 것이다. 여기에 귀를 감싸는 유선형의 옐로 골드 모티브가 조화를 이뤄 모던하다. 문의 02-3461-5558



CARTIER

사막의 척박한 환경에 굴하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선인장의 아름다움을 담은 라퐁 드 까르띠에 하이 주얼리 네크리스. 선인장 열매, 비바리안 피드를 형상화한 구조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는 모델로, 상취를 뜻하는 크리스토프레이즈, 평온을 의미하는 라피스 라울리와 함께 총 5.18캐럿에 달하는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문의 1566-7277



truly Magnificent

예술 작품을 방불케 하는 디자인과 희소성 있는 스톤의 조화로 탄생한 하이 주얼리 피스. 강렬하고 매혹적인 세계로의 초대.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DAMIANI

심세한 속 강렬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붉은빛의 미모사 꽃을 모티브로 한 미모사 컬렉션 하이 주얼리 이어링. 화이트 골드 보디 위에 8.07캐럿에 달하는 페어 컷 루비를 세팅하고, 총 6.74캐럿에 달하는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로 장식해 눈부신 광채를 발한다. 문의 02-3279-9074



BOUCHERON

자연이 지닌 아름다움에 깊은 매력을 느낀 탐미주의자이자 장란자 프레데릭 부세본이 공작사의 것에서 영감을 얻어 창조한 플럼 드 펑 컬렉션의 하이 주얼리 롱 네크리스. 1만5천여 개에 이르는 화이트 토포즈를 엮은 네크리스와 품본 장식이 아름다움의 절정을 이룬다. 원을 그리는 정교한 것일 모티브 위에는 5백47개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화려함의 방점을 찍었다. 문의 02-3213-2246 에디터 **이혜미**

ATELIER
SWAROVSKI
BY PENÉLOPE CRUZ



times Square

홀홀 접어 올린 셔츠나 재단이 잘된 트렌치코트. 반듯한 재킷 소매 아래로 살짝 보이던 더욱 근사하다. 사각사각 가을이 가까워지는 소리에 어울리는 사각 시계.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왼쪽 윗부터 시계 방향) **카르띠에 랜더 드 카르띠에** 기존 스톤 사이즈보다 더 작아진 21x25mm의 미니 모델로 손목에 부드럽게 착감되는 브레이슬릿과 케이스는 스틸 소재다. 4백40만원대. 문의 1566-7277 **에르메스 카레 아쉬** 38x38mm 사이즈의 정사각 스틸 케이스에 송아지가죽 스트랩을 매치했다. 디자인이 마크 베르테리가 완성한, 빛과 질감의 균형이 돋보이는 디자인. 9백만원대. 문의 02-542-6622 **피아제 라갈리아비토 토노** 18K 핑크 골드 케이스에 총 86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화이트 사틴 스트랩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한 것이 특징. 4천9백만원. 문의 02-540-2297 **다이아니 노레 디 산 로렌초** 반듯한 사각형 골드 다이얼과 브레이슬릿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화려하고 고급스럽게 마무리했다. 가격 미정. 문의 800-001-324 **티파니 스퀘어 2 핸드** 7mm의 정사각 스틸 케이스에 화이트 다이얼, 샬버 푸드레(poudre) 냄버, 블랙 악아가죽 스트랩을 매치했다. 42시간 파워 리저브가 가능하다. 6백만원. 문의 02-547-9488 **사실 워치 프라미에르** 파리 방돔 광장과 냄버 5 항수 병뚜껑에서 영감을 받은 18K 골드 팔각형 케이스에 총 56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3천2백만원대. 문의 080-200-2700 **부세른 레올레** 바티컬 고드를 모티브의 18x29, 5mm 스톤 사이즈 스틸 케이스와 사파이어를 세팅한 크라운, 로마숫자 인덱스가 멋스럽다. 3백만원대. 문의 02-3213-2246 **통 포드 001** 심플함이 최고의 우아함이라는 통 포드의 정신을 반영했다. 케이스 뒷면에 대고 위에서 아래로 밀어 넣기만 하면 교체 가능한 스트랩도 특징. M 사이즈 1천백4만원(스트랩 별도). 문의 02-6905-3640 **에거 트롬보르 라베르스 원 듀에토** 케이스를 뒤집어 두 버전의 다이얼을 사용할 수 있다. 하나의 동일 무브먼트로 작동하는 듀에토 콘셉트에 따라 이름 붙인 것으로, 스틸 케이스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1천만원대. 문의 02-6905-3988 **에디터 장미완**



Brooks Brothers

THE ORIGINAL AMERICAN BRAND

현대 판교점 6F | 031.5170.1634 현대 목동점 B1F 레드플러스 | 02.2163.1993 현대 미아점 5F 레드플러스 | 02.2117.1555
 롯데 에비뉴엘 잠실점 4F | 02.2143.7682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B1F | 02.2052.6337 갤러리아 타임월드점 6F | 042.720.6618
 스타필드 코엑스몰 B1F 레드플러스-플래그십스토어 | 02.6002.1818 신세계 강남점 7F 레드플러스 | 02.3479.1383

BROOKSBROTHERS.CO.KR

2019 F/W Trend Report

과감하게 털어내거나 섬세히 더하는 스타일링의 묘미가 가득한 2019 F/W 시즌이 도래했다. 더욱 살벌하게 돌아온 파위 솔더부터 과감한 로맨틱 무드로 한층 충만해진 프린세스 룩까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여성복 트렌드의 만찬을 즐겨보자.

trend 1. Perfect Gray

지적이고 우아한 매력을 지닌 그레이를 좀 더 극단적으로 활용해보자. 핵심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던한 그레이로 한껏 치장하는 것. 그레이 룩 초심자라면 슈트도 입문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은근한 핀 스트라이프가 돋보이는 살바토레 페라가모와 드리스 반 노튼의 슈트는 그레이 룩의 정석을 제대로 보여준다. 한층 더 풍성한 그레이 룩을 연출하고 싶다면 마iler 코어스의 컬렉션도 좋은 참고시. 레오포드, 헤링본, 파이톤 등 다양한 패턴과 소재를 응용해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했다.

trend 2. Colorful Fur

피 특유의 볼륨감에 화려한 색감을 더한 것이 이번 시즌 퍼 트렌드의 핵심. 특히 막스마라와 구찌의 런웨이 룩처럼 원색으로 점철된 과감한 스타일링에 도전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모노톤의 심플한 이너웨어와 매치해 우아하고 실용적인 피 아우터웨어 스타일링을 선보인 톰 포드의 컬렉션을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친연한 컬러를 품은 피 아이템 하나면 어떤 스타일링이든 비뺌해질 수 있다.

trend 3. The Return of the Princess

갑작스러운 유행은 아니다. 로사스, 발렌티노 등 로맨틱 룩의 기존 강호들과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시몬 로샤, 세실리에 반센 등을 통해 은밀히 세력을 넓혀온 로맨틱한 프린세스 룩. 차근차근 쌓아온 소녀들의 욕망이 이번 시즌 극으로 치달았다. 하늘 높은 줄 모르게 한껏 솟은 퍼프 소매, 당도 높은 컬러 팔레트, 그리고 호화롭게 펼쳐지는 스커트까지. 핵심 키워드는 과감함이다. 평소 드레스에 대한 남다른 로망이 있었다면 이번 시즌이 절호의 기회. 여기에 과감한 프린트와 러플 장식을 더하면 그야말로 금성심화다.

trend 4. Power Shoulder Again

특유의 강렬한 실루엣으로 전 세계를 사로잡았던 파위 솔더가 돌아왔다. 더 넓고 강력하게, 발광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올리비에 루스테인은 과거 아카이브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해 우아한 파위 솔더 케이프를 선보였고, 이자벨 마랑과 스텔라 매카트니는 과감한 너비의 어깨 실루엣으로 파위 솔더의 새로운 전성기가 있음을 선포했다. 밀리터리 룩과 결합된 매니시한 아이템이 주를 이루던 과거와는 달리 새롭게 돌아온 파위 솔더는 여성스러운 아이템에 강력한 실루엣을 녹여낸 것이 특징이다.

trend 5. Big Pocket

포켓이 덩치를 키워 룩을 이끄는 주연으로 거듭났다. 정확한 각을 이루는 사각 형태와 바깥으로 돌출된 대담함이 특징인 이번 시즌 빅 포켓 디테일은 베이직한 아이템에 스포티한 무드를 부여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대표적으로 프라다의 카키 컬러의 빅 포켓 아노락으로 미래적인 무드를 품은 밀리터리 룩을 완성했고, 막스마라는 터틀넥 폴오버를, 그리고 사카이는 뷔스티에를 통해 각양각색의 스타일로 빅 포켓 디테일을 선보이면서 룩에 색다른 힘을 실었다.

trend 6. Only Leather

가죽의 매력을 마음껏 탐닉할 수 있는 계절. 더 본격적인 레더 스타일링을 즐겨볼 때다. 아우터부터 이너, 그리고 하의까지 레더로 중무장한 스타일링이 이번 시즌의 대세. 특히 밀라노 가죽 명가 토즈의 활약이 돋보인다. 텍스처와 색상이 각기 다른 톱과 팬츠를 매치한 작장은 물론 실크처럼 부드러운 촉감이 부드러운 색상을 녹인 레더 셔츠와 날렵한 레더 스커트의 조합까지 다양한 스타일의 올레더 룩을 선보였다. 반면 텍스처와 컬러가 동일한 재킷과 와이드 팬츠를 매치한 살바토레 페라가모와 올 블랙으로 더없이 쿨한 룩을 연출한 자방시 컬렉션도 시선을 사로잡는다.

trend 7. Extremely Long Sleeves

손끝까지 완벽하게 감추며 무릎 선까지 내려오는 과감한 소매 길이의 상의가 우후죽순 등장했다. 길이만으로도 확실한 포인트가 되는 독특한 롱 슬리브 트렌드는 다양한 스타일의 아이템에 결합될 수 있다. 볼드한 컷프스로 마무리한 발렌시아가의 블라우스, 붕긋하게 솟은 어깨선부터 소매까지 넓게 퍼지는 전위적인 실루엣의 매종 마르 지엘라의 재킷, 브랜드의 테니스 아카이브를 적극 활용한 라코스테의 V넥 폴오버까지, 다채롭게 준비되었다.

trend 8. See-Through for F/W

봄과 여름에 이어 시스루의 강세가 하반기까지 이어질 예정. 자칫 둔해질 수 있는 가을, 겨울 스타일링에 섬세함을 첨가하고 싶다면 시스루 소재 아이템을 적극 활용해보자. 클래식한 디플코트 안에 시스루 드레스를 더한 다음의 룩은 2019 F/W 시즌을 위한 시스루 스타일링의 모범 답안이다. 그 외에도 화이트 셔츠에 블랙 시스루 블라우스를 겹쳐 그윽한 페미닌 룩을 완성한 샤넬과 발레리나를 테마로 매니시한 셔츠, 재킷 스타일링 아래 세밀한 도트 패턴의 시스루 벨 스커트를 매치한 레드 발렌티노의 룩에서도 시스루의 활약이 엿보인다.

trend 9. Glossy Outerwear

올 하반기 단 하나의 아우터웨어를 마련해야 한다면? 유연한 광택감과 하드한 실루엣의 글로시 아우터웨어를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다니엘 리의 영입으로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한 보테가 벤테가부터 레지나 표, 크리스토퍼 케인, 심지어 미니멀 룩의 대명사 크리스토퍼 메르메까지, 다수의 디자이너가 너나 할 것 없이 글로시 아우터웨어를 내놓았다. 달콤한 실랑 시름을 쏟아부은 듯도 골적인 광택은 가죽 소재와는 전혀 다른 매력을 선사한다.

trend 10.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

과거, 할리우드 황금기 스타들이 2019 F/W 런웨이를 화려하게 컴백했다. 몇 시즌째 트렌드를 장악하고 있는 뉴트로처럼 과거를 이야기하지만 그 결은 확실히 다르다. 여배우의 기품과 격동하는 당시의 시대상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 과거 할리우드의 스타일에는 시대를 뛰어넘는 우아함이 깃들어 있다. 1930년대 슈트 룩의 대명사 마를레네 디트리히를 연상시키는 돌체앤가바나의 매끄러운 화이트 텍스처부터 다이앤 키튼의 전성기를 그대로 옮긴 듯한 셀린느의 트윈드 재킷 룩이 그 예다. 객원 에디터 홍혜선

Colorful Fur_GUCCI

Perfect Gray_DRIES VAN NOTEN

Colorful Fur_MAXMARA

The Return of the Princess_VALENTINO

Big Pocket_SACAI

Big Pocket_PRADA

Only leather_TODS

Only Leather_SALVATORE FERRAGAMO

See-through for F/W_CHANEL

Power Shoulder Again_ISABEL MARANT

Extremely Long Sleeves_JW ANDERSON

Extremely Long Sleeves_BALENCIAGA

Glossy Outerwear_LEMAIRE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_DOLCE&GABBANA

블루 니트 톱, 옐로 레더 팬츠, 블랙 부츠 모두 가격 미정 에르메스.

FULL HOUSE

클래식, 그리고 스타일리시함.
새로운 시즌을 여는 빅 하우스들의 남성복 뉴 룩 프리뷰.
photographed by lee sang hun



블랙 & 화이트 레더 코트
1천1백90만원, 패턴 톱 74만원
모두 바버리.

반스매 패턴 셔츠 1백19만원,
스트라이프 팬츠 1백19만원,
블랙 레이스업 슈즈 1백92만원,
레디 벨트 59만원, 캔버스 벨트
50만원 모두 포함이다. 블랙 시스루
터틀넥 가격 미정 보태가 배너다.



블랙 재킷 가격 미정, 니트 터틀넥
가격 미정, 시스루 터틀넥
가격 미정, 팬츠 1백53만원, 부츠
1백26만5천원 모두 보태가 배너다.

스트라이프 재킷 가격 미정, 민트
그린 셔츠 55만원, 그레이 팬츠
가격 미정, 바겐다 웨이스트
밴드 17만원, 화이트 스니커즈
89만원 모두 스타일토레 데파르트.



스트라이프 키디건, 셔츠,
타이, 그레이 팬츠, 부티
모두 가격 미정한다.

플라워 프린트 재킷
1백78만원, 팬츠 78만원,
그린 톱 65만원 모두 에트코.

체크 재킷, 화이트 셔츠,
블랙 팬츠 모두 가격 미정
유희 보스.

헤어 김우준
메이크업 이봄
모델 Evan Pankratov, Marcos
Alexandre
어시스턴트 김원민, 김승준
스타일리스트 채환석



보태가 배워다 02-3438-7682
에르메스 02-542-6622
유희 보스 02-515-4088
에트로 02-511-2573
렌디 02-2056-9023
실버스토리 파라다이스 02-3430-7854
버버리 080-700-8800
프리다 02-3218-5320



1 명품 브랜드 루이 비통이 지난 4월 초 밀라노 디자인 주간에 고혹적인 공간 팔라초 세르벨로니에서 선보인 오브제 노마드(Objets Nomades) 컬렉션 일부. 세계적인 디자이너들과 루이 비통 장인 노하우의 만남으로 탄생한 가구와 소품 등을 전시했다. 장은 원래를 바탕으로 한 콘서트나 악기에서 이름을 따왔다는 영국에서 활동하는 로 에지스(Raw Edges) 듀오의 콘서트나 체어(Concertina Chair), 스위스 3인조 디자인 그룹 아틀리에 오이(Atelier Oï)의 '사뮈엘의 테이블'(Serpentine Table), 네덜란드의 스타 디자이너 마르셀 반더루스(Marcel Wanders)의 빨간색 다이아몬드 화병(Diamond Vase) 등이 보인다. Photo by Tommaso Sartori 2 올해 밀라노의 오브제 노마드 전시를 위해 한자리에 모인 다국적 크리에이티브. 이들은 브랜드에 갖춰진 장인 정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행 예술에서 영감을 받아 지속성 있는 협업을 도모한다. Photo by Tommaso Sartori, 3 브라질 출신의 거장 캄파냐 형제(Campana Brothers)의 예술성이 묻어나는 작품은 '칼라베르'에 예술성 있는 무게감을 더해준다. 사진은 여러 색상으로 출시한 '코콘(Cocoon)' 체어, 4 올해 새로 선보인 캄파냐 형제의 '벌보(Bulbo)' 라운지 체어. 마치 꽃송이에 감싸 안긴 듯한 느낌을 선사한다. 5 캄파냐 형제의 감각이 돋보이는 모듈식 소파 '봄보카(Bomboca)'. 역시 다양한 색상으로 나온다.



루이 비통 '오브제 노마드' 프로젝트

Nomadic Luxury

오늘날 디자인 환경은 '컴퓨터' 덕에 더할 나위 없이 편리해졌는지 모르지만, 스크린에 끌려다니며 나머지 외려 '메이킹' 경험을 쌓고 제대로 미학을 터득한 신예를 찾기 힘들다는 비판이 있다. 최고의 기술, 장인 정신에 입각한 섬세함과 예술성을 갖추고 재료나 구상에 제약 없이 별로 받지 않는 플랫폼에 디자이너들은 환호할 수밖에 없다. 브랜드의 핵심 가치인 '여행 예술'이라는 맥락에서 세계적인 디자이너들과 자유로이, 하지만 수준 높은 창조적 협업을 펼쳐온 루이 비통(Louis Vuitton)의 '오브제 노마드(Objets Nomades)' 프로젝트가 좋은 예다. 게다가 이 프로젝트가 빛어낸 아름다운 가구와 소품 컬렉션을 한국에서도 선보일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려온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가 사회 전반에 떠오르고 있는 오늘날, 많은 일을 거뜬히 해내는 로봇의 발달에도 미래에 살아남을 유망 직업군 목록을 보면 문화 예술 계통이 압도적으로 많다. 화가, 조각가, 포토그래퍼, 작가, 디자이너, 분장사, 영화감독, 뮤지션 등. 추상적인 개념을 정리하거나 창출하는 지식, 그리고 개인의 감성이라는 요소는 대체 불가능한 힘과 가치를 품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인간의 손길이 닿은 물건 특

를 일관된 큰 주제로 삼는다. 독특한 예술 감성으로 유명한, 브라질이 낳은 거장 캄파냐 형제(Campana Brothers), 디자인계 여왕으로 불리는 스페인 출신의 파트리시아 우르키올라(Patricia Urquiola), 재치와 실험적인 면모가 돋보이는 스위스 3인조 그룹 아틀리에 오이(Atelier Oï), 섬세한 화려함이 매력적인 네덜란드의 디자이너 마르셀 반더루스(Marcel Wanders), 독특 튀는 재치가 사랑스러운 로 에지스(Raw Edges), 환상적인 색채 감각을 지닌 프랑스의 인테리어 디자이너 인디아 마다비(India Mahdavi) 등 디자인 생태계에서는 이름만으로도 설레는 크리에이티브들이 일회성이 아닌 꾸준한 협업을 펼쳐왔다. 올해는 이탈리아의 '신성' 듀오인 자넬라토/보르토토(Zanellato/Bortotto)가 처음으로 합류해 생

기를 더하기도 했다. 오브제 노마드의 매혹적인 결실은 세계 주요 도시에서 열리는 문화 예술 행사에서 아름다운 전시를 통해 공개되곤 하는데, 올해는 홍콩 아트 바젤, 밀라노 국제가구박람회(Saloni)의 장외 전시 등에서 마주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서울에서도 만날 수 있게 됐다. 오는 10월 말 그랜드 오픈을 앞둔 루이 비통 매종 서울(Louis Vuitton Maison Seoul)에서 오감을 채워줄 만한 다채로운 오브제 노마드 작품을 선보이면서 한국 소비자에게도 전격 판매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저마다의 매력에 출중하지만, 이 지면에서는 올해 직접 만나본 디자이너들을 소개한다.

독보적인 예술성으로 사랑받는 캄파냐 형제

브라질 태생으로 남미의 별이라는 칭송을 듣는 캄파냐 형제는 남미를 여행한다면 꼭 상파울루에 있는 그들의 스튜디오에 찾아가고 싶은 '사랑스러운' 듀오다. 캄파냐 표 디자인에는 늘 자유롭고 강렬한 에너지가 흐르고, 때로는 그로테스크한 분위기를 풍기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자연의 영감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 일까, 여전히 기본 좋게 만드는 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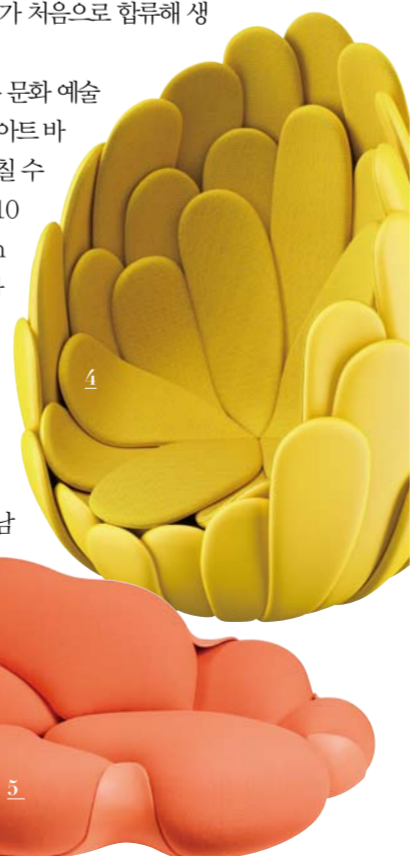


사진 제공 루이 비통(Louis Vuitton)



6 지난 4월 밀라노 디자인 주간에 밀라초 세르벨로니에서 전시된 오브제 노마드 전시 풍경. 캄파냐 형제의 크림색 '벌보' 소파 뒤를 해 처음으로 오브제 노마드 진영에 합류한 자넬라토/보르토토의 데뷔작 '만달라(Mandala)' 스크린이 보인다. Photo by Tommaso Sartori, 7 로 에지스의 콘서트나 조형, 8 가족을 사용하는 다채로운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로 에지스의 '돌스(Dolls)' 체어, 9 데칼과 완성도의 미학이 돋보이는 '팔라베 체어(Palaver Chair)', 이번 호 프랜즈 스토리의 주인공이기도 한 파트리시아 우르키올라(Patricia Urquiola)의 작품이다. 10 환상적인 색채 감각으로 잘 알려진 프랑스의 인테리어 디자이너 인디아 마다비(India Mahdavi)의 '탈라스인 테이블(Talisan Table)', 11 다채로운 색상으로 나와 있는 아틀리에 오이(Oï)의 '스툴(Stool)', 평평하게 접혀 손쉽게 이동 가능한 여행 예술의 정수를 가장 잘 반영한 작품 중 하나로 꼽힌다. 오브제 노마드 프로젝트의 가구 컬렉션 후 례 소품 컬렉션인 레 '벌보 노마드'는 오는 10월 말 서울 청담동에 문을 여는 루이 비통 매종 서울에서 만나볼 수 있다.

가 있다. 지난해 탈털하고 인심 좋은, 옆집 어저씨 같은 매력을 지닌 동생 페르난도(Fernando) 캄파냐와 대화할 기회를 가졌는데, 올해는 운 좋게 형인 움베르토(Umberto) 캄파냐를 밀라노에서 만났다. '사진상의 외모로만 보면 동생과 달리 냉철하고 이성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터라 살짝 긴장했는데 웬걸, 그 역시 따뜻하고 소탈한 면모의 소유자였다. 캄파냐 형제는 루이 비통의 오브제 노마드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함께했는데, 그네 의사 '코콘(Cocoon)'을 비롯해 폭신한 탈착쿠션의 조합이 인상적인 모듈식 소파 '봄보카(Bomboca)' 등 오브제 노마드를 대표하는 인기작을 내놓았다. 올해는 열대 꽃을 연상시키는 신작 '벌보(Bulbo)' 라운지 체어를 선보였는데, 마치 다양한 포용을 하듯 감싸 안기는 느낌을 준다. 방문한 지 벌써 10년 정도 됐지만 "서울이라는 도시를 좋아한다"면서 애정을 드러낸 움베르토는 "우리 스튜디오에는 한국 디자이너도 있는데, 이 작품 디자인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문화에 대한 융합적인 시각이 매력적으로 에지스

런던에서 활약하는 로 에지스는 형제가 아니라 '커플'인 야엘 메르(Yael Mer), 샤이 알칼라이(Shay Alkalay)의 디자인 스튜디오 이름이다. 이스라엘 출신인 이들은 영국 왕립예술학교(RCA) 동창생으로 졸업 전시회에서 디자인 잡지 <월페이퍼*> 공동 창립자이자 영국 가구 브랜드 이스태블리시드 앤드 선스의 설립자 앨리스테어 윌리스에게 발탁되면서 재능을 인정 받은 뒤 꾸준한 자신들의 존재감을 키워왔다. 필자도 당시 런던에서 그들의 데뷔를 지켜봤던 터라 밀라노에서 만난 인연이 더욱 반갑게 느껴졌다. 그들이 오브제 노마드 프로젝트에서 선보인 '콘서트나 컬렉션(Concertina Collection)'은 꽃잎을 겹쳐 만든 듯한 디자인의 없는 부분이 접히는 의자와 접이식 조형 등으로 이어져온 연속으로, 한눈에 봐도 세련된 단순미와 감각이 느껴진다. 그런데 그 같은 디자인을 처음 구현하는 데 무려 4년이나 걸렸단다. "보기와는 달리 복잡하기 그지없었다"는 게 그들의 설명. 로 에지스는 올해 홍콩 아트 바젤의 오브제 노마드 전시를 필두로 깜찍한 신작을 선보여 눈길을 사로잡았다. 가족과 친, 다채로운 색상의 여러 조합이 저마다 다른 개성을 지어내는 귀여운 '돌스(Dolls)' 체어 시리즈가 그 주인공. 아프리카, 북극 지방, 스코틀랜드 등 여러 곳에서 가족과 다른 소재를 다루는 방식에 끌렸다고. "가족은 어디에서나 항상 사용됐다고요. 돌, 나무 등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재료를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결합하는지 지켜봤죠." 이 밖에 종이접기 세나 배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었다는 '돌스(Dolls)' 신반도 공간의 미학을 살려주는 소품이다.

디자인계의 여왕, 파트리시아 우르키올라

스페인 태생이지만 학창 시절 이래 밀라노에서 줄곧 활동해온 파트리시아 우르키올라는 인테리어와 디자인업계의 '여왕'으로 대접받고 있는 슈퍼 디자이너이자 건축가다. 호텔, 가구, 제품 디자인 등 다방면에서 놀라운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고, 2015년부터는 이탈리아의 유서 깊은 가구 브랜드 카시나(Cassina)의 아트 디렉터를 맡고 있기도 하다. "디자이너는 아이디어와 스케치를 현실로 이뤄주는 장인의 노하우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녀는 바쁜 행보 속에서도 오브제 노마드 프로젝트와 함께하면서 디테일의 미학이 돋보이는 작품을 선보여왔다. 핸드백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금속 손잡이와 메시(mesh) 등의 요소가 현대적 감성과 유목적 감성의 조화를 이루는 '스윙 체어(Swing Chair)', 그리고 정교한 가족의 짜임새가 은은한 아름다움을 뽐내내는 '팔라베 체어(Palaver Chair)', 그리고 가족 시트 단 4장만을 조립해 만든 세 가지 크기의 바구니 시리즈인 '오버레이 볼(Overlay



Bowl)' 등 파트리시아 우르키올라다운 폭넓은 스펙트럼과 완성도를 여지없이 보여주는 가구와 소품이 그 소산이다. 오브제 노마드 프로젝트에 초기부터 참여해 "애정이 많다"고 강조한 그녀는 올해는 별도의 신제품을 선보이지 않았지만, 오는 10월 파리의 루이 비통 제단 미술관에서 열리는 전설의 디자이너 샤를로트 페리앙(Charlotte Perriand) 회고전을 위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탈리아의 디자인 신성, 자넬라토/보르토토

올해 밀라노 가구박람회에서 마주한 또 하나의 행운은 반짝이는 생기와 우아함을 겸비한 디자이너 듀오 자넬라토/보르토토. 이탈리아 출신으로 베니스 근교 트레비소를 근거지로 맹렬히 활약하고 있는 이들은 커플이 아니라 동창이자 친구 사이로, 남다른 시너지를 발휘하는 짝꿍이다. 올해 처음으로 오브제 노마드 진영에 합류했는데, 공간 활용도와 미적 감수성을 높이면서도 실용적인 파티션 기능을 하는 '만달라(Mandala)' 스크린이 데뷔작이다. 지난 봄 밀라노에서 오브제 노마드 전시장으로 쓰였던 팔라초 세르벨로니(Palazzo Serbelloni)의 멋진 공간에 첫선을 보인 이 스크린은 캄파냐 형제의 크림색 '벌보' 소파와도 환상의 궁합을 지어냈다. "잘 어울려서 기뻐"고 말하는 이들은 "루이 비통에서 (프로젝트에 참여해 달라고) 제안받은 것 자체가 정말 믿기 힘든 일이었다"면서 늑크즈다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약간씩 겹쳐지는 3개의 커다란 금속 원형 틀을 감싸는 가죽 스크랩으로 만든 '만달라' 스크린은 이름 그대로 힌두와 불교에서 명상에 쓰이는 수행법이자 문양이기도 한 '만달라'를 모티브로 삼았다. 그리고 루이 비통 모노그램의 꽃 모양을 '폭발하는 느낌'으로 집어넣었다고. "이 스크린은 내부를 나누고 분위기를 바꾸는 '롬 디바이드' 역할도 하지만 접을 수 있어 (다른 장소로) 옮기기도 쉬운데, 공골의 유르트(Yurt)라는 텐트 문화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오브제 노마드의 정체성과 잘 맞아떨어지는 자유롭고 유연한 감성을 지닌 이 듀오의 차후 행보가 자못 기대된다. 글 고성연(밀라노·홍콩 현지 취재)

editor's Pick

쏟아지는 신제품 홍수 속 에디터들을 사로잡은 가을 뷰티 아이템 13.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왼쪽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상투키아 티프 베일 #비보티** 2016년 6월 18일 건조한 인종 때문에 립밤을 수시로 휴하는 에디터를 만족시킨 제품. 오가닉 비오라비 오일을 함유해 부드럽고 촉촉하게 발리며, 자연스럽게 발색되는 누디 톤도 매력적이다. 2.5g 629원. 문의 02-517-0902_by 에디터 이주이

바이레도 슬로우 덴스 핸드크림 바이레도에서 새롭게 출시한 슬로우 덴스 라인은 가을과 다음이 잘 어울리는 중성적이고 풍부한 향을 지녔다. 침략자 빈 고향의 자전적 경험에 착안해 신센에서 남성으로 성장하는 순간 느린 신원과 흥분을 재해석, 틱 노르도 달콤하며 스모카한 오프파우스를 더해 신비롭기까지 하다. 30ml 4만9천원. 문의 02-3479-1688_by 에디터 이혜미

골레보 보아 시아그리프 넥 데콜레 크림 얼굴의 2/3 두께인 목과 피지 분비량이 적어 늘 건조한 데콜레의 성숙한 피부를 케어하고 주름을 개선해주는 크림. 에디터가 더더욱 반한 건 함께 들어 있는 마사져 때문이다. 제품을 바른 후 꽃잎 모양 메탈 마사져의 볼록한 부분으로 피부를 부드럽게 문질러주면 고급 스파 부럽지 않게 시킨다. 75ml 49천원. 문의 080-564-7700_by 에디터 정리운

볼리 1803 월 앙파고 바디 오일 리넨 데코스 기울레림이 분다 싶으면 건조함이 짝 짝 느껴진다. 특히 물은 유·수분 함량이 높은 샤워 제품을 사용했음에도 땅기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이럴 땐 보디로선보다 오일이 더 효과적. 신물성 보디 오일로 마사져 후 부드럽게 문질러 가볍게 두드려 흡수시킨다. 흡수 속도는 나무 향도 마음에 든다. 190ml 7천7백원. 문의 1544-5114_by 에디터 정리운

룩사담 이모르텔 프레스스 크림 피부 건조성이 최악을 달린 시기 제 만난 착한 뷰티 아이템. 착하고 건조한 피부에 들뜬 바르던 다음 날 마치 수면 마스크를 한 듯 피부가 탱탱하게 되살아난다. 천연 이모르텔 향이 편안하고 은은해 미치 이모르텔 리피를 받은 듯 하루의 피로가 날아가는 느낌. 50ml 9천원. 문의 02-2054-0500_by 에디터 이주이

랑콤 뉴 어드밴스드 제-피피오 탄생 10주년을 맞은 제-피피오의 이상적, 인체에 서식하는 미생물의 유익한 생태계를 뜻하는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15년간의 연구와 분석을 통해 얻은 노하우를 반영했다. 평평하던 턱 1회 사용 후 수 있는 적절한 양의 로딩되는데, 가볍고 얇은 텍스처가 피부를 감싸는 느낌으로 멍김 없이 스며들어 비싼 아침에 사용하기 좋다. 30ml 1만1천원. 문의 080-022-3332_by 에디터 정리운

에스티 로더 섹슈어스 레펠 렉스 + 리프트 마스크 가루 날림, 번짐이 적고 물처럼 얇고 보습을 안주는 에스티 로더의 마스크 라인. 새롭게 추가된 신제품 또한 이 모든 장점을 갖췄다. 얇은 브러시 타입 애플리케이션으로 섹슈어스를 함유한 포플러를 두어 번 덧칠하니 금세 속눈썹이 갈라지는 드라미틱한 효과까지 다만 렉스 마스크는 섹슈어스 레펠과 볼록 효과는 미미한 편이나, 뷰티 톨과 함께 사용하면 더욱 좋을까. 8ml 4만4천원. 문의 02-6971-3212_by 에디터 이혜미

겔랑 베리르 골드 쿠션 #001 여러 번 덧칠해도 묻치지 않고 촉촉하게 스며드는 느낌. 쿠션 형태의 파운데이션은 양 조절이 편한데, 딱 적당한 양이 피부에 묻어나온다. 수정을 원하는 부위에 톡톡 두드리면 즉각적으로 촉촉하고 빛나는 피부를 표현해주며, 신성 사이언티피크를 지닌 자전식 케어 베이스가 건조함을 따로 호하지 않아도 된다. 15g 8만9천원. 문의 080-343-9500_by 에디터 이주이

리파리 스킨 케어 아이 리프트 피부에 에너지를 부여하는 골드 케어이외의 놀라운 효능을 경험할 수 있는 세럼 타입 아이 케어 제품. 평평과 동시에 2개의 내츄럴에 담긴 펩티드 성분과 골드 케어이외가 불만족된 상태로 배출한다. 아이 크림 전 단계에서 사용하기 좋은 촉촉하고 가벼운 텍스처로, 눈가는 물론 눈썹에 이르는 넓은 범위에 걸쳐 비싼 전천적인 탄력을 도울 수 있다고. 20ml 60천원. 문의 02-511-6626_by 에디터 이혜미

나스 페이스 필렛 밤어 라이즈 콤플렉스 사이즈로 인해 어디서든 수정 메이크업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실용 만능 뷰티 아이템. 파산한 햇살에서 영감을 얻은 자연 브라운 계열로 이루어진 네 가지 아이섀도우와 하이라이터, 브로칭 파우더를 한 데 모았다. 손끝에 묻혀 쓱쓱 발라도 자연스러운 음영 메이크업이 가능하다. 7.9천원. 문의 02-6905-3747_by 에디터 이주이

자이스 르 루즈 딥 벨벳 #N33 오렌지 시름 기존에 선보이던 르 루즈에 새로운 포플러와 케이스를 적용했다. 발색을 위한 케이스처럼 파우더처럼 텍스처의 매트 린스 텍으로, 한 번만 발라도 선명한 컬러가 두드러지는 발색력 또한 매력적. 여섯 가지 색조 중 메인 컬러인 오렌지 시름은 톤 다운된 오렌지 컬러로 F/W 시즌에 잘 어울린다. 3.4g 4만8천원. 문의 080-801-9500_by 에디터 이혜미

샤넬 기브라젤 샤넬 헤어 미스트 기브라젤 샤넬 향을 입는 새로운 방법, 헤어 미스트. 머리에 직접 뿌리거나 브러시에 뿌려 사용해도 좋다. 향은 물론 머리카락을 부드럽고 윤기 나게 가꿔주는 효과도 있는 듯. 오전 8시를 뿌리고 출퇴근 오후 1~2시까지 은은한 향이 난다. 40ml 7만2천원. 문의 080-332-2700_by 에디터 정리운

시슬리 레전드 코믹 크림 몽글몽글한 거품 재질이 피부에 덮으면 리치 크림 형태로 변해 부드럽게 메이크업 잔여물을 녹여준다. 세정제와 수분감을 동시에 갖춰 세안 후 멍김 없이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것도 장점. 125ml 1만3천원. 문의 080-549-0216_by 에디터 이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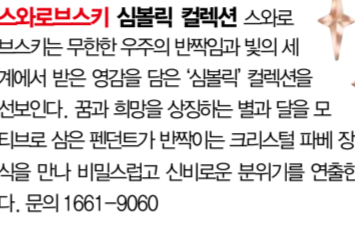
* 정리운(40대 남성), 이혜미(30대 여성), 이주이(20대 지-복합성)

JEWEL&WATCH

리차드밀 RM 57-03 투르비옹 사파이어 드래곤 사파이어 불록을 조각해 용의 몸통을 만들었으며, 머리와 발은 레드 골드로 제작했다. 묵직하고 까다로운 사파이어 기계 가공 공정 기술은 물론, 성세하고 정교한 인그레이빙 기술을 이용해 만든 최첨단 기술의 종합체다. 오직 55피스만 생산하며 아시아에 서만 론칭할 계획. 문의 02-512-1311

까르띠에 클라쉬 드 까르띠에 브레이슬릿 지난 5월에 선보인 클라쉬 드 까르띠에 컬렉션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브레이슬릿 버전을 추가했다. 곡면 윤곽선 사이로 다이아몬드를 촘촘하게 세팅하고 스타드를 더해 오리지널 버전보다 더욱 여성스러운 우아함을 지니본다. 문의 1566-7277

프레드 옹브르 펠린스 창립자 프레드 사무엘이 1960년대에 발표한 표범 모티브 주얼리에서 영감을 받은 옹브르 펠린스를 선보인다. 표범의 두 발을 모던한 선으로 형상화한 이 컬렉션은 표범의 당당하고 대담한 매력을 보여주는 프레드의 시그니처 중 하나. 링, 이어링, 펜던트, 초커 네고스, 브레이슬릿 등 10점의 새로운 주얼리로 구성된다. 문의 02-514-3721



랑콤 뉴 어드밴스드 제-피피오 제-피피오 탄생 10주년을 맞은 올해, 7개의 프리 & 프리바이오틱스* 성분을 함유해 건강하고 여러 보이는 피부로 가꾸는 데 도움을 주는 3세대 뉴 어드밴스드 제-피피오를 출시한다. 미치 피부에 배임을 원형 및 가뭄에 발리고 심해지게 흡수되며, 피부 깊숙이 수분과 영양을 채워 탄력 있는 젊은 피부로 가꾸준다. 문의 080-022-3332

에스티 로더 어드밴스드 나이트 리페어 인텐스 라셋 컨센트레이트 에스티 로더의 어드밴스드 나이트 리페어 인텐스 라셋 컨센트레이트는 스킨케어 자외선 차단제와 에센셜 오일을 함유한 케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 깊은 출창 혹은 여형, 환절기, 그리고 일상적인 환경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때 사용하면 피부가 빠르게 회복된다. 문의 02-6971-3212

SHOWROOM



콜롬비아 델라 스피가 데 메테르 월드 카프스킨 원티 출리데이를 테마로 한 2019 F/W 컬렉션에서 눈여겨볼 아이템인 '데메테르' 월드 카프스킨은 기존 데메테르를 모던한 형태로 고급스럽게 디자인했다. 문의 02-3449-5197



에르메스 다쁘레 난 르 세르장 개런인 이틀리에 에르메스는 9월 6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한국에 프랑스 작가 다쁘레 난 르 세르장의 신작 전시 <실버 메모리>가월에 도달하는 방법을 개최한다. 사진과 드로잉을 혼합해서, 혹은 서로 다른 이미지의 사진이나 비디오투를 병치함으로써 상이한 이미지 영역 사이에서 긴장을 조성하고 분열과 분리, 경계를 부각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문의 02-542-6622



브리오니 2019 F/W 컬렉션 브리오니가 친철하고 자신감 넘치는 브리오니 맨의 럭셔리 라이프스타일을 표현한 컬렉션을 선보였다. 시그니처 테일러링으로 컨템퍼러리한 요소를 담아낸 새로운 슬렌더 슬림 핏 실루엣의 프리모 슈트를 선보여 이목을 끌었다. 비버거죽 라잉 포일 코트, 블레이저와 트랜치코트, 블루투스 등의 아이템도 눈에 띈다. 문의 02-3274-6483



브룩스 브라더스 프레드 라넨 드레스 여성 컬렉션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잭 포존이 페미닌한 프레드 라넨 드레스를 선보인다. 라넨 100% 소재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드레이핑과 쾌적한 착용감이 특징이다. 또 형태 안정성이 뛰어난 우아한 실루엣을 연출하고, 서클리스 네크라인과 짧은 소매, 그리고 허리의 주름 밴드 디테일을 더해 고급스럽다. 문의 02-2052-8822

에르노 스트라이프 플로럴 패턴 블루투스 에르노에서 시스루 소재와 가볍고 통풍성도 좋은



토리 2019 F/W 컬렉션 토리는 F/W 컬렉션에서 소재와 실루엣에 관한 고찰이 느껴지는 레디투웨어와 더불어 다양한 소재와 사이즈로 변주를 더한 슈츠와 핸드백, 액세서리를 선보였다. 또 비비드한 색감과 유쾌한 디자인으로 유머러스한 타치를 기미한 '해피 모먼트' by 알버 엘바즈(Happy Moments by Alber Elbaz) 컬렉션으로 신선함을 더했다. 문의 02-3438-6008

바버리 2019 F/W 컬렉션 캠페인 사진작가 단코 스타이너(Danko Steiner), 닉 나이트(Nick Knight)와 함께한 2019년 F/W 캠페인을 공개한다. 한국 모델 최소라와 박희정을 비롯해 지지 하디드, 이리나 시트, 프랜세스 머스, 알렉시스 차피로와 프리자 베하 에릭센 등이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다. 문의 080-700-8800

릭 오웬스 베자외의 컬래보레이션 슈즈 브랜드 베자(Veja)와 컬래보레이션해



완성된 라그나 스커츠는 맞춤형 바이오 베이스와 바나나 오일, 살겨로 이루어졌고, 브리질 천연 고무로 만든 L-폼(L-FOAM) 쿠션을 적용했다. 재활용 플라스틱 병으로 만든 3D 니트는 신발을 매끄럽게 하고 통기성을 높인다. 버터 베이지, 블랙, 그리고 인스클루시브인 더 스크 그레이 컬러로 출시할 예정이다. 문의 02-516-2217

차이스 체스트 슈즈 1873년부터 수제화를 선보여온 영국 브랜드 차이스의 체스트 슈즈는 기존에 출시했던 클래식한 무드에서 탈피한 새로운 스타일이 특징이다. 굽이 있는 두툼한 러버 솔과 심플한 곡선이 돋보이는 여피를 조합한 스타일로, 조금 더 젊고 자유로운 느낌이 든다. 문의 02-3218-5331

구찌 트윈스 토르스 더블 G 구찌의 '트윈스 트 토르스 더블 G' 백은 하우스의 1970년대 아이기브에서 영감을 받은 골드 컬러의 트윈스 토르스 더블 G 백들이 멋스럽다. 조절 가능한 스트랩을 줄여 스카프를 워밍업한 톨 핸들로도 들 수 있다. 미디엄 스퀘어 드 버전의 레드, 미디엄 레더 버전의 레드와 그레이 이, 그리고 스몰 레더 버전의 블랙, 레드, 그레이 컬러로 다양하게 출시된다. 문의 1577-1921

BEAUTY

FASHION

GUCCI

